

5/21/23

설교 제목: 성전 건축과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한 예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6 장 9-15 절

(속 6: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6:10)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절관주** 스 7:14-16, 렘 28:6, 스 2:1, 스 2:2

(속 6:11)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속 6: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절관주** 사 53:2, 엡 2:20, 히 3:3

(속 6: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속 6:1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절관주** 사 56:6-8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 환상을 기록한 후, 여덟 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으로 기록한 성전 재건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스가랴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 곧 구원이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통치의 구현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언약을 선포하시며 성전 재건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으십니다.

스가라서는 전반부, 삽입부, 후반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6 장은 BC 520 년 스가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덟 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룹니다.

여덟 가지 환상을 기록하기 전 회개를 권면하는 서론과 여덟 가지 환상을 기록한 후 환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삽입부 7, 8 장은 BC 518 년 벨엘 사람이 스가라 선지자에게 제기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이후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며 제 오월과 칠월 금식일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전이 준공되는 마당에 오월과 칠월 금식일을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반부 9-14 장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복된 종말론적 미래를 위해 세우신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전반부와 삽입부의 말씀이 주어진 후 40 여년이 지난 BC 480-470 년경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힘입어 BC 516 년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경제적인 궁핍과 정치적인 불안정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성전이 재건된지 40 여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생활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 쫓기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예루살렘과 주변 이방 토착민들의 눈치를 보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깊은 영적 회의와 불감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었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스가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 주신 선민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정과 평화, 승리와 복락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선포합니다.

훗날 선민들에게 찾아오실 왕이시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로 인해 선민들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본토에 돌아 왔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의 달콤한 안일과 보상을 약속하거나 직설적 당위론적 설교를 하기 보다는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진리인 선민이 누리게 될 영원한 종말적 비전을 제시하여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자발적이며 역동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속 6:9)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6:10)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속 6:11)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헬대 도비야 여다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스바냐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부 제사장이자 동시에 성전을 감독하는 유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요시아의 집에 가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관한 확신을 갖도록 하여 성전 재건 건축을 독려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실 때 ‘면류관’은 우리 말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위한 면류관과 메시아 직분을 위한 면류관, 두 면류관이 씌여진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왕권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헬대 도비와 여다야 요시아’ 이들은 특정한 인물을 넘어 성전 재건의 대업을 성취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 위해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헬대’는 머리된 자, 강한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도비야’는 선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다야’는 지식이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입니다.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완전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치유받은 자 곧 구원을 미리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면류관이 정치적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지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본래 스룹바벨이 맡아 이루었습니다.

(슥 4:8)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슥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면류관은 스룹바벨이 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면류관을 총독 스룹바벨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에서부터 성전 재건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어 곧 메시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육적인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나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혈통적인 나라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메시아 왕국이 역대 이스라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면서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 6: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스 6:13)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곳에서'는 메시아가 나기로 한 곳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 자리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 사이에 서로 충돌이 없고 제정일치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시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숙 6: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들은 10 절에 언급된 헬대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헬렘은 헬대, 요시아는 헨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가라는 먼 데 사람 곧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 곧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숙 6:1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지키는 것과 기다리는 것까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사, 교인들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유대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방인을 택해서 마침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취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면, 나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